



사노피, 2013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아

- 사노피,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산에 앞장 선 공로로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아
-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과 성별 균형 측면에서 가족친화경영의 실효성 확인



2013년 12월 10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제약사업부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는 9일 어제 여성가족부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3년도 일·가정 양립 실천대회 및 가족친화기업 포상식’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노피는 실효성 있는 가족친화경영의 한 축으로 다채로운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이번 인증 심사에서는 직원 가족 초대 행사와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직원 자녀 교환 프로그램,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연말연시 및 명절 단체 휴가, 그리고 주 1회 조기 퇴근 프로그램 등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내 다양성 확충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탄력 근무제와 단축 근무제, 모성보호 휴게실 등 워킹맘을 위한 프로그램과 여성 직원의 리더십 배양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사내 강연’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성별 균형을 일궈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실제로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전 직원 중 40%가 여성직원이며 중간 관리자급 이상에서도 남녀 직원 비율이 거의 동등할 정도로 여성 임직원의 비율이 높다.

사노피 배경은 사장은 “사노피는 가족친화 문화의 정착을 위해 ‘일과 삶(Work in Life), ‘직원과의 동반 성장(Growth with People), 새로운 사노피(New Sanofi)’의 세가지 측면에서 직원과 가족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계기로 직원의 몰입도를 높이고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여성가족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정된 기업과 기관은 향후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